

아침세평

김홍석

G-Kunst연구소장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우리가 밭을 딛고 살아 가는 현실 세계를 본질인 '이데아(Idea)'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는 동굴 속에 갇힌 죄수들이 벽에 비친 그림자를 진실이라 믿듯, 인간이 감각에 의존해 본질을 놓치고 있음을 경계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눈부신 경제 성장과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지독한 고독과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잃어가는 정신적 빈곤이 자리 잡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변영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그림자에 갇혀, 인간다운 삶의 본질이라는 이데아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소환해야 한다. 예술은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을 가시화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게 하며, 파편화된 개인을 다시금 공동체의 일원으로 묶어주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예술의 힘이 전해준 사회적 치유의 실천 사례들은 많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을 치유하려는 시도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영국은 의료유이나 경증 우울증을 겪는 시민에게 약물 처방 대신 지역사회의 예술 활동을 연결해 주는 '사회적 처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기본을 좋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시민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기능한다.

문화예술교육 이데아-고립 넘어 공동체 치유로

독일의 '쿠부스(KUBUS) 프로젝트'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은퇴를 맞이한 고령층이 자신의 생애를 기록하고 이를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이 프로그램은 노년기를 '쇠퇴'나 '종말'이 아닌, 삶의 경험이 무르익어 완성되는 시기로 재정의한다. 또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El Sistema)'는 총 대신 악기를 쥐어줌으로써 빈민가 아이들이 범죄로부터 구출하고 지역 사회에 희망을 심어줬다. 이러한 사례들은 문화예술이 개인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것을 넘어, 병든 사회를 고치는 강력한 '사회적 치유'의 도구임을 증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100세 시대의 노년은 더 이상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나 휴식을 취하는 짧은 기간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해야 하는, 어쩌면 가장 긴 '제3의 인생'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고령층은 급격한 디지털화와 가족 해체 속에서 유례없는 소외와 고독사라는 위협 앞에서 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이다. 교육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노년기의 예술 교육은 단순한 서예나 노래 교실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신의 삶을 서사화하고, 이를 다양한 매체로 표현하며 사회와 소통하는 과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예술을 통해 노인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고, 사회는 그들이 가진 삶의 지혜라는 이데아를 공유받게 된다.

예술은 논리적 언어보다 강력한 감정적 언어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세대 갈등은 단순히 가치관의 차이를 넘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함께 연극 무대를 꾸미거나, 청년이 노인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이를 글이나 그림으로 옮기는 '세대 공감

프로그램'은 놀라운 마법을 부린다. 예술이라는 공통의 장 안에서 세대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인간으로서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과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정서적 교류는 파편화된 개인들을 다시 공동체의 유대감으로 묶어주는 접착제가 된다. 내가 만든 노래가 이웃에게 닿고, 이웃의 춤이 나에게 위로가 될 때, 사회적 안전망은 국가의 복지 행정을 넘어 시민들 사이의 '정서적 연대'로 확장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다.

필자는 고등학교 1학년 초부터 음악가의 길을 걷고자 연습실에서 외롭게 나 자신과 싸우는 꿈많은 음악학도였다. 기나긴 학업 과정을 모두 마치고 1996년에 귀국해 독창회와 오페라 주역으로 데뷔했다. 연주자와 강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꿈같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2009~2010년 정음성극제음악제 집행위원장과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나를 깨운 단어는 '통섭(consilience)'이었다. 대학을 사직하고 문화예술 경영자가 되고자 했던 것도 이 단어가 안겨준 선물이었다. 15년 여정의 문화기관 퇴임 후 평소 꿈꿔왔던 문화예술교육에 관하여 현장에서 느꼈던 예술 활동과 문화예술행정을 접목하여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교육을 수강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이 사회에 나가 문화예술교육의 전도자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단에 선다.

플라톤이 갈망했던 이상 국가의 이데아는 하늘 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술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인간다운 품격을 회복하는 바로 그 현장에 존재한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관심은 우리가 맞이할 미래에 대한 가장 따뜻하고도 확실한 보장이다. 이제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서서 문화예술교육의 토양을 비옥하게 다져야 할 때다. 그 토양 위에서 피어날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 것임을 확신한다.

기고

황한이

학교폭력예방교육센터 대표 전남대 교육학과 강사



2026년의 찬란한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지만, 우리 아이들이 마주한 교실의 풍경은 그리 따뜻하지 않은 않다. 최근 발표된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우리 교육계에 무거운 과제를 던져줬다. 피해 응답률이 3%에 달하며 1차 조사(2.5%) 때보다 눈에 띄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치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폭력의 양상이 더욱 교묘해지고 일상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고, 갈등 관계의 사소한 부분까지 신고로 이어지는 경향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원인이 무엇이든, 우리 사회가 그간 학교폭력에 대응해온 방식은 생활기록부 기록 강화와 신속한 분리 등 엄격한 법적 갖대물 세우는 데 집중해 왔다. 수많은 정책이 쏟아졌고 강력한 처벌이라는 단호함이 지배했지만, 과연 학교폭력의 현상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학교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행정 절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명분 아래, 정

찬란한 봄, 아이들의 관계도 다시 필 수 있도록

작 아이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적 구조는 완전히 무너졌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온 한 학부모의 호소는 지금의 학교 폭력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절차는 모두 끝났지만, 피해 학생인 저희 아이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내리진 '집금 금지'는 보호라는 이름 아래 아이들이 화해하고 다시 어울릴 기회조차 뺏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제 반에서 누구와 놀아야 하나요?"라고 학교에 물었더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처벌은 끝났으나 회복은 시작조차 못한 학교폭력은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고, 우리 교육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드러난 상황이다.

가해 학생은 잘못을 책임지고, 피해 학생은 보호받는 사이에서 무너진 '관계'는 누구의 관심도 닿지 않은 채 방치돼 아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을 배우며 다시 화해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다.

그 결과 가해학생은 낙인과 배제, 피해학생은 스스로를 가뭇버리는 등의 심리적 어려움으로 또 다른 단절을 경험하며 학교 공동체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 교육적인 접근으로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잘못에 대한 책임과 함께 당

사자끼리 진심어린 대화를 나누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용을 경험하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교사의 역할 재정립과 권한 강화다. 교사는 단순히 학교폭력을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교사는 가장 가까이에서 학교폭력의 사안의 맥락을 알고 회복 가능성을 판단하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주체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깨진 관계를 다시 잇고 회복을 이끄는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쩌면 교사가 법적 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갈등 조정 전문가로서 교육적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권한을 주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도 있다.

친구들과 맘껏 뛰놀며, 인생을 논하며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기는 인생의 계절상 봄이라고 생각된다. 그 소중한 시간을 처벌과 단절 속에 방치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관계 맺기 능력은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성장하고 변화하는 교육의 기회가 줘야 한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고 다시 연결되고 시작하는 계절이다. 교육 또한 이봄처럼 처벌로 마침표를 찍기보다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회복하는 교육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그 변화의 길은 더디고 복잡하겠지만, 지금 시작해야 우리 아이들의 봄이 찬란하게 될 것이다.

사설

스타벅스 마케팅 파문이 더 확산되는 이유

스타벅스코리아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15일~26일까지 탐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공식 홈페이지와 앱 등에 게시한 홍보물에 '탱크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날짜 '5/18'을 강조하고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의도된 일베 밈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5·18과 탱크의 조합은 소위 '전망크 드림'으로 대표되는 전두환의 별명과 연관된 밈이다. 5·18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하성 밈인 것이다. '책상에 탁!'도 군부 독재 시절인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망사건을 왜곡해 발표했던 경찰의 표현과 유사하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지만 스타벅스는 그 심각성을 모르고 '탱크탐블러데이'와 '작업 중 딱~'으로 대중 문구만 변경해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마저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앞두고 극우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조롱 표현을 연상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마케팅 행사는 중단됐지만 여론은 점점 악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저질 장사처 막장 행태 분노"라고 분노했고 오월 단체 등은 '찬란한 역사 인식'이라고 반발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들도 "경영진의 왜곡된 역사관이 마케팅으로 표출된 결과"라고 말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머그잔을 밈치로 깨부수는 영상 등 '불매운동'을 인증하는 게시글과 글도 잇따랐다. 스타벅스 틀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뜻의 '탈벽'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에 신세계그룹 회장이 18일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해임하고 19일에는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지만 파문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탐블러 용량으로 표기된 503ml이라는 숫자가 박근혜의 주민번호를 연상케 한다는 의혹과 과거 세월호 참사 발생일인 4월 16일 '미니탱크데이' 마케팅을 한 점을 들어 모든 것이 다분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세계 그룹 회장의 과거 논란도 한몫하고 있다. 그는 개인 SNS에 '별공' 게시글을 올려 정치적 편향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에는 극우 정치·종교 성향 단체를 후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민주주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대기업의 마케팅 파문이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여름철 산사태 증가 "사전정비·예방이 답"

광주·전남지역 국유림 내 산사태 취약지역이 248곳이나 된다고 한다. 광주와 전남·북, 경남 10개 시·군과 제주도를 관할하고 있는 서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관할 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지난해 말 기준 총 808곳이다. 이 중 광주·전남 취약지는 영양국유림관리소(광주와 전남 서부권 13개 시·군) 87곳과 순천국유림관리소(전남 동부권 9개 시·군) 161곳 등이다.

지난해 지역 국유림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영양관리소에서 2건(1.49ha), 순천관리소에서 6건(3.35ha) 등 모두 8건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기상 패턴 변화로 전국적인 산사태 피해가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2015~2019년 521건이었던 연평균 산사태 피해 건수가 2020~2024년에는 223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2637건까지 치솟은 것이다.

여기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한 것이 한 몫을 했다.

실제로 1991~2020년까지 연평균 3.4회 국내에 영향을 미친 태풍이 지난해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여름철 강수량도 평년보다 적었는데도 산사태가 급증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산사태 피해의 98.9%가 7~8월에 집중되고 있는 추세인데 다 기상청이 올 여름도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지성 집중호우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산림당국은 산사태 피해지역의 모든 복구를 다음 달 말까 지 완료해 2차 피해를 막기로 했다.

또 영양 89곳, 순천 97곳 등 모두 186곳에 달하는 산사태·홍수 예방 구조물인 사방댐을 중심으로 사방시설 점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등을 벌여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줄이기로 했다. 오는 10월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림재난대응단 60명을 투입해 산사태 취약지역과 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산림당국은 집중호우로 늘어난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정비와 예방이 답이라는 걸 명심할 때다.

취재수첩

수도권 관람객을 광주로 부르는 새로운 실험

정재경

문화체육부 차장대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최근 문화예술과 관광을 결합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끈다. 관람객 유입을 늘리기 위한 주목할만한 시도여서다.

ACC가 여행사와 협업해 선보인 '메모리얼 투어'는 공연 한 편을 보고 돌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연과 전시, 5·18 사적지 탐방, 지역 관광을 하나의 여정으로 엮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총 2회(지난 15~16일, 16~17일)에 걸쳐 운영된 이번 투어는 서울 잠실역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광주로 내려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일정이었다.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을 앞두고 ACC 5월 레퍼토리 공연 '시간을 철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ACC 전시와 공연을 관람하고, 옛 전남도청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 광주의 역사 현장을 둘러봤다. 여기에 담당 직원 등 인근 관광지 일정까지 더해지며, ACC가 자리한 광주를 잠시 들리는 곳이 아닌 머물며 이해하는 곳으로 경험하게 했다.

'5·18 행사 전야제를 눈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함께 한 시간은 80년대를 되돌아보게 했다'거나, '수확여행

을 떠난 학생처럼 배우는 현장이었고 민주화의 열기가 느껴졌다'는 참가자들의 후기는 이 프로그램이 단순 관광을 넘어 배움과 감동을 전했음을 보여준다.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관람객이 그 콘텐츠를 보기 위해 광주를 찾도록 만드는 일이다. 교통과 숙박, 식사, 관광을 묶은 체류형 프로그램은 수도권 관람객의 접근 장벽을 낮추고, 지역 체류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CC 메모리얼 투어는 광주가 가진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문화예술 관광 자원으로 풀어낸 의미있는 출발점이지 않을까.

지역의 역사와 관광자원을 함께 엮어 관람 경험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까지 이끈 결실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처럼 관광을 결합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ACC는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는 공간에서 관람객을 광주로 이끄는 문화관광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Table with columns: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and contact info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editorial, circulation, and advertising.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